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Jean Dubuffet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김 선 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진형여

Jean Dubuffet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

A Study on the Creation of Art Make-Up Works by
the Application of Jean Dubuffet's Works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김 선 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진형여

Jean Dubuffet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

A Study on the Creation of Art Make-Up Works by
the Application of Jean Dubuffet's Works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김 선 경

김선경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Jean Dubuffet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김 선 경

예술은 고상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로 여겨져 왔으나 요즈음 현대사회에서는 그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고 실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회화, 조각, 건축 등의 순수 예술이 패션, 광고, 영화 및 다양한 장르와 접목됨으로써 점차 그 장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창작 장르로 여겨지며 유행처럼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순수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장점을 주목하여 순수 예술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 영역을 확대시키며, 회화양식을 아트메이크업에 응용하는 것은 순수 예술의 아름다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체위에 메이크업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아트메이크업의 예술적 미적 감각과 미적 요소를 폭넓게 활용하여 독창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독자적인 예술로서 인정받고 있는 아트메이크업의 창의적 발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관례적인 예술방식에서 벗어나 독특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펼쳤던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작품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트메이크업

을 더욱 새롭게 인식시키고, 표현양식을 다양하게 하여 보다 예술적 차원의 창작 표현 방법으로 아트메이크업 분야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및 특성과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으며, 재료 및 도구, 표현기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장 뒤뷔페의 삶과 작가의 미술사적 성향과 작품의 경향 및 작가의 작품 탐구시기를 구별하여 고찰하였다. 위 연구를 토대로 장 뒤뷔페의 예술적 특성과 앵포르멜(informel) 및 반문화적(anti-cultural)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60년대 이후의 작품 6점을 선정하여, 이를 응용한 작품을 우를루프와 추상회화, 아르 브뤼 성향으로 분류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장 뒤뷔페는 앵포르멜, 즉 비정형과 반문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미적 기준과 잣대를 지닌 그의 예술적 성향을 기반으로 ‘아르 브뤼(art brut)’라는 마치 아이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순수한 예술 세계를 보여주었다. 장 뒤뷔페를 기준으로 아르 브뤼의 명칭과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의 미술 작품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 뒤뷔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를루프 시리즈(L’Hourloupe series)’이다. 선과 형태의 증식되어가는 듯 한 유기적인 형태와 정형화된 색채 사용을 유지하면서 회화작품과 조각,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는 장 뒤뷔페를 대표할 만한 작품들이며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를루프 스타일의 작품은 70년대 이후 추상회화시기에서도 다양한 색채와 함께 다른 듯 연결된 작품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었다.

셋째, 앵포르멜 및 반문화에 대한 확고한 장 뒤뷔페의 신념과 순수예술에 대한 그의 갈망은 그의 작품세계와 다양한 창작 활동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자유롭고 선명한 느낌의 작품을 아트메이크업으로

제작해 본 결과 컬러와 형태에 대한 본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추후 연구자들에게 장 뒤뷔페 뿐만 아니라 순수 예술 회화 작품들을 보다 다양한 방식과 기법을 적용하여 새롭고 신선한 디자인의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창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장 뒤뷔페, 아르브뤼, 앵포르멜, 우를루프, 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아트메이크업	4
1.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및 특성	4
2. 아트메이크업의 종류	5
1)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6
2) 환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8
3)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	10
3. 아트메이크업의 재료 및 도구	13
1) 수성 컬러(Water Color Base)	13
2) 유성 컬러(Oil Color Base)	13
3) 분말 도료	14
4) 브러시(Brush)	14
5) 퍼프, 스펀지(Puff, Sponge)	14
6) 에어브러시(Air Brush)	14
4.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15
1) 회화적 기법(Painting Technique)	15
2) 오브제 응용 기법(Object Technique)	16
3) 조명기법(Light Technique)	17
(1) UV발광 기법(Ultraviolet Technique)	17
(2) 일루미네이션 기법(Project Illumination)	18

4) 디지털 기법(Digital Technique)	19
제 2 절 장 뒤뷔페의 성장배경 및 미술사적 배경	20
1. 장 뒤뷔페의 성장배경	20
2. 미술사적 배경	23
1) 앵포르멜(Informel)	23
2) 반문화(Anti-cultural)	24
3) 아르 브뤼(Art Brut)	25
3. 장 뒤뷔페의 작품 연구	28
1) 마띠에르 탐구 시기(1943~1960)	28
(1) 원시미술(Primitive art)	28
(2) 오뜨 바뜨(Hautes Pates)	30
(3) 아쌈블라주(Assemblage)	32
2) 우를루프 탐구 시기(1960~1974)	34
3) 추상회화 탐구 시기(1974~1985)	37
제 3 장 작품제작	39
제 1 절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39
1. 작품제작 의도	39
2. 작품제작 방법	40
제 2 절 작품제작	41
1. 작품 우를루프	41
2. 작품 우를루프-초상화	43
3. 작품 아르 브뤼 I	45
4. 작품 아르 브뤼 II	47
5. 작품 추상회화 I	49
6. 작품 추상회화 II	51

제 4 장 결론 및 제언	53
---------------------	----

【참고문헌】	56
--------------	----

ABSTRACT	61
----------------	----



【 표 목 차 】

[표 1] 아트메이크업의 종류	12
[표 2] 우를루프	41
[표 3] 우를루프-초상화	43
[표 4] 아르 브뤼 I	45
[표 5] 아르 브뤼 II	47
[표 6] 추상회화 I	49
[표 7] 추상회화 II	51



【 그림 목 차 】

<그림 1> 페이스페인팅 1	7
<그림 2> 페이스페인팅 2	7
<그림 3> 페이스페인팅 3	7
<그림 4> 페이스페인팅 4	7
<그림 5> 환타지 메이크업 1	9
<그림 6> 환타지 메이크업 2	9
<그림 7> 환타지 메이크업 3	9
<그림 8> 환타지 메이크업 4	9
<그림 9> 바디 페인팅 1	11
<그림 10> 바디 페인팅 2	11
<그림 11> 바디 페인팅 3	11
<그림 12> 바디 페인팅 4	11
<그림 13> 회화적 기법 1	15
<그림 14> 회화적 기법 2	15
<그림 15> 오브제 기법 1	16
<그림 16> 오브제 기법 2	16
<그림 17> UV 발광 기법 1	17
<그림 18> UV 발광 기법 2	17
<그림 19> 일루미네이션 기법 1	18
<그림 20> 일루미네이션 기법 2	18
<그림 21> 디지털 기법 1	19
<그림 22> 디지털 기법 2	19
<그림 23> OswaldTschirtner, Irren-Anstalt Band-Hain, 1910	27
<그림 24> Oswald Tschirtner, Menschen, 1999	27
<그림 25> Jean Dubuffet, Dhôtel nuancé d'abricot, 1947	27
<그림 26> Jean Dubuffet, Carrot Nose, 1962	27
<그림 27> Jean Dubuffet, Madame Mouche, 1945	29

<그림 28> Jean Dubuffet L'Accouchement, 1994	29
<그림 29> Jean Dubuffet Châtaïne aux hautes chairs, 1951	31
<그림 30> Jean Dubuffet Haute pâte sur panneau, 1945	31
<그림 31> Jean Fautrier, Head of a Hostage, 1944	31
<그림 32> Jean Fautrier, Hostage, 1943	31
<그림 33> Jean Dubuffet, Butterfly-Wing-Figure, 1953	33
<그림 34> Jean Dubuffet, Jardín nacarado, 1955	33
<그림 35> Jean Dubuffet, Cheveux de Sylvain, 1953	33
<그림 36> Jean Dubuffet, Jardin de Bibi Trompette, 1955	33
<그림 37> Jean Dubuffet, Cycle de L'Hourloupe, 1978	35
<그림 38> Jean Dubuffet, Serie de sites tricolores, 1974	35
<그림 39> Jean Dubuffet, Nung Stans, 1965	35
<그림 40> Jean Dubuffet, LE LIT I, 1964	35
<그림 41> Jean Dubuffet, Beast, 1969	36
<그림 42> Jean Dubuffet, Group de quatre arbres, 1972	36
<그림 43> Jean Dubuffet, Jardin d'hiver, 1969~70	36
<그림 44> Jean Dubuffet, The Gossiper II, 1969~70	36
<그림 45> Jean Dubuffet, Mire G 127, 1983	38
<그림 46> Jean Dubuffet, Mire G 106, 1983	38
<그림 47> Jean Dubuffet, Mire G 111, 1983	38
<그림 48> Jean Dubuffet, Theatre De Momoire, 1977	38
<그림 49> Jean Dubuffet, Main least et rescousse, 1967	42
<그림 50> Jean Dubuffet, Self Portrait, 1966	44
<그림 51> Jean Dubuffet, Campagne heureuse, 1975	46
<그림 52> Jean Dubuffet, Good prognosis, 1975	48
<그림 53> Jean Dubuffet, paysage rose avec 7personnages, 1975	50
<그림 54> Jean Dubuffet, 무제, 1974	5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공동작업·협력·합작이라는 의미와 함께 마케팅 용어로도 쓰이는데 각기 다른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둘 이상의 브랜드가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나 소비자를 공략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 내고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마케팅 방식의 하나이다. 단순히 다른 장르가 서로 만나 ‘1+1=2’가 되는 것이 아닌 양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최대한 발휘되고 또한 그 강점들이 서로 잘 부각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시 말해 표면적인 더하기가 아닌 본질적 융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으로써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매출을 올리는 데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작업을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통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와 창작 작품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동반한다.

예술은 고상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로 여겨져 왔으나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고 실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화, 조각, 건축 등의 순수 예술과 패션, 광고, 영화 및 다양한 장르와 접목함으로써 점차 그 장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창작 장르로 여겨지며 유행처럼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순수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자는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장점을 주목하여 순수 예술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차용하여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과 조형적인 면을 추구하며 그 표현 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회화양식을 아트메이크업에 응용하는 것은 순수 예술의 아름다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체 위에 메이크업으

로 재창조함으로써 아트메이크업의 예술적 미적 감각을 높여주고, 미적 요소를 폭넓게 활용하여 독창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회화에서 그 당시 초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관례적인 예술방식에서 벗어나 소외된 개개인에 대한 무의식의 세계를 자연스러운 조형예술로 표현했던 예술 혁명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의 작품(엄현신, 1999, p9)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디자인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 뒤뷔페의 작품에 대한 연구로 정민옥(2010)의 ‘장 뒤뷔페(Jean Dubuffet)작품 연구’, 신주은(1998)의 ‘장 뒤뷔페(Jean Dubuffet)작품 연구’, 양갑인(2004)의 ‘장 뒤뷔페(Jean Dubuffet)예술세계 연구’, 이해경(1990)의 ‘장뒤뷔페(Jean Dubuffet)繪畫 特性에 關한 研究’, 강명은(2010)의 ‘장 뒤뷔페(Jean Dubuffet)의 작품 연구’, 최희수(1978)의 ‘Jean Dubuffet회화 (원생미술)의 현대적 의의’, 신영빈(2006)의 ‘장 뒤뷔페의 회화 연구’, 권현칠(1994)의 ‘장 뒤뷔페의 예술세계 연구’등이 선행연구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 뒤뷔페의 작품을 응용하여 복식디자인으로 연구하고 작품을 제작한 이상미(1994)의 ‘장 뒤뷔페 작품의 프리미티비즘을 응용한 복식디자인’과 엄현신(1999)의 ‘장 뒤뷔페의 작품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등 연구 선행 자료가 있지만 장 뒤뷔페의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회화, 건축, 조각 등의 순수 예술과 패션의 장르가 확장되면서 서로 교차되고 상호간의 특성을 교류하며 새로움을 창조해나가는 형상에 주목하였다. 또한 아트메이크업을 통해 표현 가능한 순수 예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 회화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예술로서 인정받고 있는 아트메이크업의 창의적 발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장 뒤뷔페의 작품을 아트메이크업 모티브로 응용하였다. 이는 아트메이크업이 새롭게 인식되며,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양식을 다양하게 하므로 보다 예술적 차원의 창작 표현 방법으로 아트메이크업 분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프랑스의 화가이며 조각가 장 뒤뷔페의 작품들 중에서 강하고 현대적인 작품세계에 주목하여 이러한 경향을 조형적이며 개성 있는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아트메이크업의 창의적인 작품제작에 관한 연구로 장 뒤뷔페의 예술적 특성과 앵포르멜 및 반문화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60년대 이후의 작품 6점을 선정하여, 우를루프와 아르 브뤼, 추상회화 성향이 드러난 작품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아트메이크업 작품 6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구성은 총 제4장으로 되어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선행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를 토대로 그 내용을 연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및 특성, 종류, 아트메이크업의 재료 및 도구, 표현기법을 서술하였다. 또한 장 뒤뷔페의 삶과 미술사적 배경을 연구하고, 작품을 마띠에르 탐구 시기와 우를루프 탐구 시기, 추상회화 탐구 시기로 나누어 작가의 작품 특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선 연구를 토대로 장 뒤뷔페의 작품 6점을 선택한 이유와 제작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고, 그 작품들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 작품 6점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장 뒤뷔페의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을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아트메이크업

1. 아트메이크업의 정의 및 특성

아트메이크업(art make-up)은 ‘art’와 ‘make-up’의 합성어이다. 아트메이크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얼굴 혹은 신체를 대상으로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을 이용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창의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메이크업을 예술의 경지로 만드는 분야’라고 하였다(한국미용학회, 2003, p573). 이처럼 아트메이크업은 신체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분야의 하나로 종합 예술임과 동시에 메이크업 자체만으로도 창조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아트메이크업은 신체보호, 종교적인 욕구충족, 사회적 직위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뷰티 메이크업과는 달리 인체를 미적 조형적인 요소로 인식하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화려하게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방수진, 2001, p18). 또한 최근 아트 메이크업은 기존의 정형화된 아름다움 추구에서 벗어나 작품을 통한 작가의 내면세계를 무언의 메시지 전달의 역할과 함께 인간의 본능적인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또한 헤어, 장식, 의상과의 조화로운 토탈 코디네이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오인영 외, 2010, p10). 또한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질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이윤선, 2011, p17). 따라서 그 표현의 방식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중시하여 많은 예술사조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아트메이크업의 종류

아트메이크업 종류는 아트 메이크업에 관련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다. 조혜지(2012)의 ‘오르엔탈리즘을 반영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메이크업, 모드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고, 이윤선(2011)의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에서는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메이크업, 패션메이크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원선(2012)의 ‘아트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와 강현신(2011)의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맹월(2011)의 ‘Lace를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성’, 노희영(2002)의 ‘現代 아트메이크업의 繪畫的 傾向과 技法에 관한 研究’의 논문에서는 그 종류를 페이스페인팅,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위의 선행 자료를 토대로 아트메이크업의 종류에 대해 서술하였다.

신원선(2012)의 논문에 나오는 아트메이크업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인체를 8등신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페이스페인팅은 신체의 13%공간을 차지하고 얼굴 중심의 페인팅으로 표현한다. 환타지 메이크업은 신체의 25%를 차지하고 주로 상반신 위주로 작품을 표현한다. 이는 토탈 스타일링(total styling)을 요구하는 공간으로 얼굴과 상반신까지의 묘사가 이뤄지고, 작가의 성향에 따라 얼굴 중심 혹은 장식 효과에 의한 의상, 헤어 액세서리 등 오브제를 통한 연출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100%의 공간을 이용하는 바디 페인팅은 전신을 통해 창의적인 작품의 세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퍼포먼스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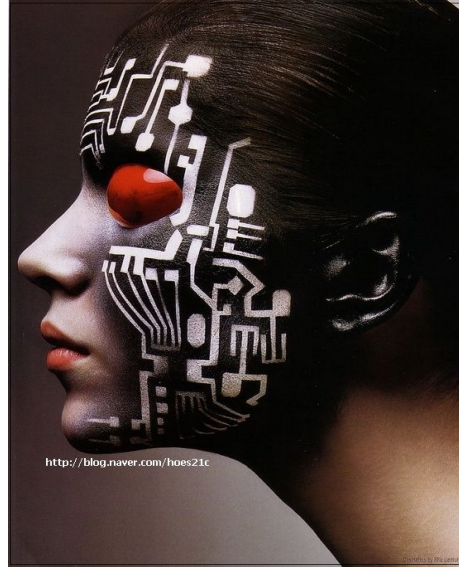
1)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페이스페인팅은 <그림1><그림2>와 같이 얼굴을 포함한 인체 공간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얼굴을 중심으로 하는 페인팅을 말한다. 과거,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종교적인 의미로 혹은 이성을 유혹하거나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태동숙, 2011, p33). 그러나 현대의 페이스페인팅은 주제나 여러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 받지 않고 인간의 신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신체를 다루는 하나의 예술로서 그 방법이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중심과 외적 감각을 창조하는 것이다(곽대웅, 1990, p239). 또한 페이스페인팅은 미학적 가치보다는 대중적이면서도 아트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축제나 가장 무도회와 같은 파티, 패션쇼 스페셜 메이크업, 캐릭터 연극 분장이나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분장 등 그 쓰임새와 종류는 다양하다(신원선, 2012, p11). 예를 들면 뽀에로 분장이나 패션쇼에서 보여주는 해체주의적인 메이크업·퍼포먼스·현대무용·오페라와 같은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의 홍보 목적의 기획행사, 다양한 축제의 이벤트, CF광고 등 목적과 유형은 다양하며, 국내에서는 1993년 세계적인 행사인 대전 엑스포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2002월드컵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되어(방경연, 2003, p37) <그림3>과 같이 다양한 페이스페인팅을 운동경기 응원을 할 때 즐기게 되었다. 이후 놀이동산이나 이벤트 행사에서 종종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험정신이 강한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도 <그림4>처럼 페이스페인팅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성과 접근성의 용이함 때문에 생활 곳곳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림 1> 페이스페인팅 1

출처: http://izismile.com/2009/03/02/facepainting_the_best_works_47_pics.htm



<그림 2> 페이스페인팅 3

출처: http://postfiles3.naver.net/20091014_194/hoes21c_125548279800mgFog_jpg/2009-10-14_10%3B05%3



<그림 3> 페이스페인팅 2

출처: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2210



<그림 4> 페이스페인팅 4

출처: <http://electric-thread.blogspot.com/2011/11/extreme-make-up.htm>

2) 환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환타지 메이크업은 신체의 25%의 공간은 이용해 상반신 위주로 작업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펄, 아쿠아컬러, 아쿠아크림 등 다양한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사물의 추상적 느낌,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강하면서도 화려하고 과장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메이크업 방식이다(김효정, 2003, p21). 또한 메이크업 뿐 만 아니라 의상, 헤어 장식까지 포함한 ‘토틸 스타일링’을 말하는 것으로 주제에 맞는 디자인을 함에 있어 얼굴 부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신원선, 2012, p12)정해진 주제와 컨셉에 맞게 의상 및 헤어, 기타 장식을 하기위한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 주제와 이미지를 표현한다.

환타지 메이크업의 어원을 살펴보면 “터무니 없는 공상, 종잡을 수 없는 상상이나 즉흥적인 착상, 즉 계획된 디자인의 흥미로운 발명”을 뜻한다. 즉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구체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과 추상적인 소재를 표현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혜지, 2012, p41). 구체적인 표현은 실물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감정, 느낌, 선녀, 용, 천사 등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는 물, 불, 나비, 꽃 등의 자연이 있고, 주제로는 기쁨이나 슬픔 등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느낌을 중요시 하는 감정적인 환타지 메이크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타지 메이크업은 특히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무대 예술에서 주로 표현되며 축제와 파티, 무도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김영희 외, 2001, pp130~131).

메이크업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환타지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에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작가의 내면의 의지를 작품에 투영시킬 수 있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감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강현신, 2011, p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아트메이크업 중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법으로 장 뒤뷔페의 작품을 시각화 하기에 환타지 메이크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작품 제작하였다.



<그림 5> 환타지 메이크업 1
출처: http://www.kmaa.or.kr/new/04_gallery/read.php?field=&wo



<그림 6> 환타지 메이크업 2
출처: <http://blog.daum.netblog/BlogTypeView.do?blogid=0Sevy&ar>



<그림 7> 환타지 메이크업 3
출처: <http://eranness.blogspot.com/2011/01/eranness-rainbow-fantasy->



<그림 8> 환타지 메이크업 4
출처: 김선경 作

3)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

바디 페인팅은 사람의 신체를 바탕으로 신체의 굴곡을 이용하여 목적에 맞게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페인팅 하는 종합 예술작업(김효정, 2003, p26)으로 불리고 있다. 바디 아트의 기원은 인간의 생존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원시시대에 신체에 채색을 하게 된 동기는 적이나 맹수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계급이나 위엄, 신성함을 나타내는 수단, 주술적 행위, 부족 간의 구별수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피부에 회화, 조각, 문신을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예술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이운선, 2011, p19).

바디아트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그림이나 부호를 그리고 색을 칠하는 것으로 인간의 신체 위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신세계와 메시지를 여러 가지 재료와 양식 등을 사용하여 채색하고 표현하는 예술 활동이다(곽주영, 2012, p6). 또한 신체예술로서의 바디페인팅을 정지된 상태로 일정시간 동안에 자유로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과는 달리 일회적이고 보존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예술품보다 사실적 작품에서 실험적 작품들까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며 영상매체로서의 보존을 통해 오래도록 살아있는 감동을 줄 수 있다(강현신, 2011, p13).

바디페인팅은 신체를 캔버스(canvas)개념으로 보고 그 위에 채색을 하는 기법으로 전신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 주제를 정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신체의 골격 및 구조를 이해해야하며, 신체의 프로포션(proportion) 즉, 비율, 조화, 균형을 생각하면서 디자인해야하고,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표현을 해야 한다(신원선, 2012, p14). 바디페인팅 디자인의 주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기하학적, 추상적이거나 상상의 세계 혹은 사상, 관념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 가능성을 무한하다. 이렇듯 바디페인팅은 다양한 신체예술의 형태로 이어져 현대에는 독특한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고, 실험성이 강한 작품이나 무대에서 조명,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곁들여 표현하게 되는 무대예술로서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전시, 퍼포먼스, 각종 이벤트, 및 광고

<그림9><그림10>과 같이 효과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소비자의 주목을 끌어 하나의 예술작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윤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림 9> 바디페인팅 1

출처: <http://topbankaccounts.com/images/bodypainting>



<그림 10> 바디페인팅 2

출처: <http://leisure.ezinemark.com/world-body-painting-festival-2010-aweso>



<그림 11> 바디페인팅 3

출처: <http://favim.com/image/14621/>



<그림 12> 바디페인팅 4

출처: <http://forum.xcitefun.net/body-painting-ancient-art-modern->

앞서 언급한 선행 논문 자료들을 토대로 아트메이크업의 종류에 대한 분류 사례들을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아트메이크업의 종류

연구자	선행논문	분류
조혜지(2012)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메이크업, 모드 메이크업
이운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메이크업, 패션 메이크업
신원선(2012)	아트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페이스페인팅
강현신(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맹월(2011)	Lace를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성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노희영(2002)	現代 아트메이크업의 繪畫的 傾向과 技法에 관한 研究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 페이스페인팅

3. 아트메이크업 재료 및 도구

1) 수성 컬러(Water Color Base)

아쿠아 컬러(aqua color)라고도 하는 데 안료가 농축되어 있어서 브러쉬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물을 섞어 적절한 농도로 개어서 사용하는 타입의 베이스 제품이다(남은선, 2009, p23).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제품이 있다.

수성 컬러의 장점은 제품 사용 후 물로 씻어내기 용이하며 건조 후 묻어나지 않는 점이다. 일반 회화물감과 거의 사용 방법이 흡사하고 그라데이션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바디페인팅이나 아트메이크업에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수성 컬러의 단점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땀이나 물이 흐르게 되면 그림이 지워지게 되므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나 작품 완성 후 모델의 주의를 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색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물감의 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농도 조절이 어려워 너무 열게 되면 피부색이 드러나 색상 표현에 방해가 되고,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피부 당김이 심해져 모델이 고통을 느끼거나 갈라지는(crack)현상의 단점이 있다.

2) 유성 컬러(Oil Color Base)

유성 컬러는 오일베이스 제품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기름 성분 때문에 부드럽게 발린다. 그라데이션 작업이 용이하고 인체의 움직임에도 균열이 생기지 않고 끈적임이 있는 질감이기 때문에 스타파우더나 클리터 등의 재료와 혼합하여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잘 건조되지 않아 쉽게 묻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파우더나 새도우 제품을 사용하여 유분을 제거해 주어야 고정력을 높일 수 있다(박보영 외 3명, 2002, p208). 또한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질감으로 넓은 부분에 사용할 경우 스펀지를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펴서 발라주고, 좁은 부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브러시를 이용하여 채색하는 것이 편리하다(남은선, 2009, p24).

3) 분말 도료

흙이나 돌가루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색을 나타내기 위해 분말 도료를 먼저 바른 후 그 위에 착색을 하거나 바르기 전 미리 섞어 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면 쉽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이상훈, 2007, p143).

4) 브러시(Brush)

인체에 색을 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브러시가 사용된다. 글씨나 섬세한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 가는 브러시를 사용하며, 넓은 부위 표현을 위해서는 굵은 브러시가 사용된다. 그리고 둥근 모양이나 납작한 모양의 브러시는 사용 용도와 표현하고자하는 모양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성이나 오일 베이스의 물감용 등의 다양한 종류의 브러시가 있다. 특히, 얼굴이나 몸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야한다. 전용 세척제가 있으며, 세척이 가능한 것이어야 위생적이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

5) 펄프, 스펀지(Puff, Sponge)

넓은 부위나 기초 베이스를 펴 바르기 위해 스펀지를 사용하는데 수성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물에 세척이 가능한 것 이어야 한다. 브러시로 표현 하는 것 보다 빠르면서도 고르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에어브러시(Air Brush)

마스크나 바디페인팅 등에 사용되는 도구로 컴플레셔(compressor)와 에어브러시건(air brush gun)을 연결하여 물감을 분사시키는 기계로 브러시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기에 용이하다. 기계로 분사하여 채색하기 때문에 에어브러시건 사용에 숙련이 되면 다른 어떤 재료보다 빠른 시간 안에 채색이 가능하다. 에어브러시 사용 시 원하는 모양을 인체에 그림 그리듯 분사할 수도 있지만, 스텐실(stencil)을 사용해 문양이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에어브러시 전용 물감인 수성 타입의 액체를 에어브러시건의 컵에 담아 분사하여 사용한다(장혜선, 2010, p80).

4. 아트 메이크업 표현기법

1) 회화적 기법(Painting Technique)

<그림13><그림14>에서 표현된 회화 기법은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기법 중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파운데이션, 수성 컬러, 유성 컬러, 아이섀도 등의 다양한 질감의 색채를 브러시나 스펀지를 이용하여 정해진 컨셉에 맞게 채색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남은선, 2009, p31). 회화적 기법의 바디 페인팅은 회화적 요소에 충실하게 작업하여 일반 회화작품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바디 페인팅 작업에는 똑같은 주제라도 회화적인 기법이 아니라 에어브러시 기법(박혜선, 2002, p11)이나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면 전혀 다른 새로운 표현 방식이 된다. 회화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연물을 묘사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시켜서 비교적 보는 이로 하여금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표현기법은 메시지 전달이 가장 용이(이현주, 2003, p24)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3> 회화적 기법 1

출처: <http://www.nemopan.com/files/attach/images/166592/388/421>



<그림 14> 회화적 기법 2

출처: 석필선, 최희정 作

2) 오브제 응용 기법(Object Technique)

오브제 응용 기법은 미술작품에서도 물감 이외에 다른 재료를 이용해 표현해 내듯이 여러 가지 재료(material)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들어 삼차원의 공간을 장으로 하고 가시적 질량을 소재로 공간에 미적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석우, 1991, p12). 현재 아트 메이크업에서 오브제를 응용한 메이크업 기법은 다양한 소재의 확장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메이크업의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제품 외에 종이, 금속, 레이스, 깃털, 천, 펄, 반짝이, 꽃, 스팅글 등의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이윤선, 2011, p24). <그림15>에서 사용된 나무와 <그림16>에서 바다 속 문어 다리 및 조개껍질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 친화적이며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모든 재료들을 아트메이크업의 재료로써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 오브제 기법 1

출처: <http://leviuqse.blogspot.com/2008/10/russian-body-art.html>



<그림 16> 오브제 기법 2

출처: http://trendscelebritybodypainting.blogspot.com/2010_03_01_ar

3) 조명기법(Lighting Technique)

(1) UV발광 기법(Ultraviolet Technique)

수성물감 중에는 UV발광물감이 있는데 이 물감은 일반조명에서도 색상을 보여주지만 UV라이트(블랙 라이트)에서 보다 선명한 색상으로 발광한다. 일반 조명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UV라이트에서는 투명한 불빛으로 보인다(공영희, 2007, p40). 형광에서 발하는 물감의 성질에 따라 진출과 후퇴색이 구분되어져 3D기법의 원근감에서 오는 입체적 표현을 실감할 수 있다. 3D는 검정색의 배경으로 암전시킨 후 조명을 투사했을 때와 인체에 있어서는 튀어나온 골격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좀 더 입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신원선, 2012, p19). 또한 이 표현기법은 UV라이트의 와트 수에 따라 색상의 선명도가 좌우되고, 라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더 효과가 크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기법을 이용해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채원, 2007, p11). 이처럼 UV발광 기법은 물감과 조명에 의해 보다 신비로운 색감과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무대공연이나 쇼 형태의 퍼포먼스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 17> UV발광 기법 1

출처: http://art-body-painting-photograph.blogspot.com/2009_03_01_archive.html



<그림 18> UV발광 기법 2

출처: <http://humanbodyart.blogspot.com/2009/04/digital-color-body-art-paintings.html>

(2) 일루미네이션 기법(Project Illumination)

직접적인 페인팅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슬라이드 필름으로 실제 사물을 촬영하거나 디지털의 기술로 몸에 투영될 무늬를 만들어서 신체위에 그 무늬의 빛과 그림자를 얻거나 대상의 표면의 질감이나 색조를 바꾸는 시도로 작업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기법(공영희, 2007, p41)을 일루미네이션 기법이라고 한다. <그림19>와 <그림20>처럼 영상물을 인체에 투사하여 연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주위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 촬영 장소에는 슬라이드 프로젝트 빛 외에는 다른 어떠한 조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검정색 배경 위에서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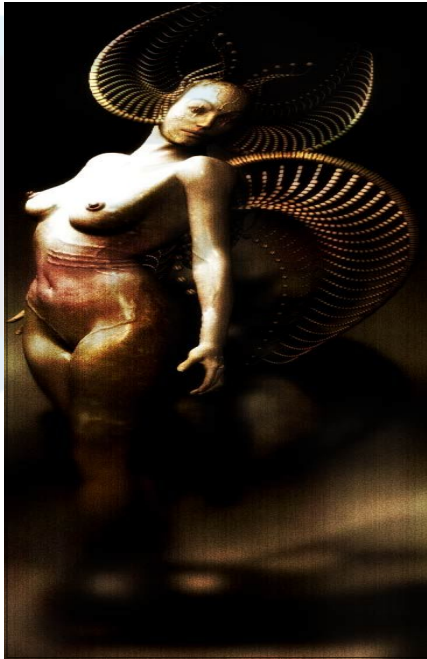
<그림 19> 일루미네이션 기법 1
출처: <http://frankiecihi.blogspot.com>



<그림 20> 일루미네이션 기법 2
출처: <http://www.ohgizmo.com>

4) 디지털 기법(Digital Technique)

디지털 기법은 아트메이크업에 있어서 특수 효과를 사실적 표현으로 선보이게 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디자인 과정상에 컴퓨터를 이용한 아이디어 발상 및 표현, 드로잉, 3차원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CAD, CAM의 응용 등 디자인 도구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신원선, 2012, p22). 디지털 기법은 일루미네이션과 같이 간접적인 표현법이다. 모델과 디자인 모티브 모두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표현기법에 비해 표현의 영역이 폭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분야는 초기 실험 단계로 예술적 분야로 정착을 위한 실험 단계(최경옥, 2009, p47)에 있으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림 21> 디지털 기법 1
출처: <http://artist-3d.com/neosurrealismart/modern-surrealis>



<그림 22> 디지털 기법 2
출처: <http://threequartermoonproductions.wordpress.com>

제 2 절 장 뒤뷔페의 성장배경 및 미술사적 배경

1. 장 뒤뷔페의 성장배경

1910년 프랑스의 북쪽 해안 르 아브르(Le Havre)에서 포도주상인 아들로 태어난 장 뒤뷔페는 1918년 그의 친구 조루쥬 랭브르(Georges Limbour)와 함께 파리로 나와 그림 공부를 위해 줄리앙 아카데미(parisian academe julien)에 입학했으나 6개월의 짧은 수학 후 기존 미술계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혼자 공부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양갑인, 2004, p8). 어머니와 지인의 설득으로 가까스로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미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반년 만에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4년간 독학을 하였다. 미술사, 시(詩), 문학, 철학, 외국어, 민족학 등 다방면으로 공부를 했지만, 결국 예술의 가치에 회의를 느껴 아버지의 와인사업을 물려받게 되었다. 1924년 장 뒤뷔페는 거의 9년간 작업을 중단하였다. 1924년 이후 아르헨티나로 회귀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었으며, 1930년대에 잠시 붓을 들었지만 다시 포기하였다.

장 뒤뷔페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후였고, 해방된 유럽 문명은 사회적, 정신적 문화의 재정비로 부산하던 때이다. 이어 1944년 10월, 장 뒤뷔페는 파리의 르네드루앵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문화계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문제 작가’로 떠올랐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군이 후퇴한 직후였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존 가치와 형태를 바꿔놓을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였다. 과학 무기와 정치인들의 위선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것을 목격한 유럽인들은 지식 보다는 인간성 회복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즉, 전쟁 전후의 사회적 상황이 급변했듯이 미술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형적 형태와 개념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정민옥, 2010, p3). 기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의 작품은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의적절하여 주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 뒤뷔페의 그림을 불쾌한 비예술적 시도로 보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게 항의와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전쟁 중, 유럽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은 나치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이와 함께 미국은 문화적으로 힘을 얻게 될 수 있었다. 미국적 양식을 주장하는 평론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20세기 후반부터는 독자적인 형태의 미술양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미술 중에서 추상 표현주의는 인간 내면의 정신성에 회화 표현의 중심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그 표현양식으로 행위추상과 색면추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려지는 이미지보다는 그린다는 행위자체를 중시함으로써 격렬함이나 생명감이 강조되는 행위추상에서 화면은 현실적인 대상을 재현하거나 재구성하고 표현하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예술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써 여겨진다(정민옥, 2010, p4).

40대 중반의 나이였던 장 뒤뷔페는 사업가다운 면모를 발휘하여 문필가나 건축가 등 다른 장르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타르, 자갈, 석고, 시멘트 등 비(非)미술적 재료들을 이용하여 ‘오프 바뜨(haute pate)’와 원형 연작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오프 바뜨’의 양식을 정립하고 회화작품을 완성하면서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철저히 거부한 것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충격과 신선함을 동시에 선사하였다.

1945년 여름 장 뒤뷔페는 큰 성과를 얻게 되는데, 스위스 여행 중 방문하게 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의 그림을 수집하며 새로운 종류의 그림에 눈을 뜨게 되었다. 반문화성을 지닌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장 뒤뷔페는 환자들이 그린 그림들을 탐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1949년 ‘아르 브뤼(art brut)’의 초기 개념을 정의하는 데 성공한다. 그 후 아르 브뤼 컴퍼니를 창설하고 아르 브뤼 컬렉션을 구성하게 되고 이 컬렉션은 뒤뷔페 작품세계에 끝없는 자극과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사실 프랑스 언론은 장 뒤뷔페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기 전에는 그를 전혀 좋게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뷔페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미술사에서 비정형(比定形)이라는 뜻의 ‘앵포르멜(informel)’의 작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미국 미술계는 앵포르멜이 현대미술의 전통을 이어받은 존재인 동시에 2차 대전 사이의 유럽적

가치관을 부정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앵포르멜의 작가 가운데서 뒤뷔페는 배설물, 전염병, 항문, 정신병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타자성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충격적인 작업을 시도하였기에 주목을 받으면서도 비평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냉전체제가 고착되고 국제 미술계의 권력이 미국에 넘어가자 프랑스에서도 이상한 흐름이 일어났다.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들이 반미 운동을 이끌고 미국은 사회주의 미술에 대비되는 자유의 상징으로 추상 표현주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에서 앵포르멜 미술이 갑자기 프랑스 문화를 대표하는 미술 운동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전체주의에 대비되는 프랑스의 자유지성을 대표하는 동시에 추상표현주의식의 미국적 가치에 맞서는 문화대표로 장 뒤뷔페가 꼽히게 된 것이다.

1947~1949년에는 세 차례의 사하라 사막 여행과 배두앵(Bedouin)족과의 부족 생활을 통하여 서구 문화와의 단절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였다. 그가 태어난 프랑스 이외에도 런던, 아르헨티나,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와 미국, 일본으로의 여행과 전시회를 통하여 재료의 다양성과 조각과 회화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더욱 폭넓게 하였다. 1985년 그가 죽기 전까지 원시 미술, 아르 브뤼, 오프 바뜨, 아쌍 블라주, 앵포르멜 운동 등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작품이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2. 미술사적 배경

1) 앵포르멜(Informel)

앵포르멜 미술은 비정형(非定形)또는 부정형의 추상을 의미하며, 1950년대에 서구 합리주의가 붕괴되고 인간성 회복을 통한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미술 사조이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나타난 미술사조 중의 하나인 앵포르멜 회화는 전쟁 이후 미술계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노버트 리튼은 “계속되는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파멸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전후 미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노버트 리튼, 1993, p258)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전쟁 전 유럽은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성중심의 사고가 정점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성과 지식, 기술 발달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갖도록 하였고, 이것을 통해 물질문명 자체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쟁이 준 충격은 전후 시대의 문화, 예술, 철학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앵포르멜이 탄생하게 되었다.

전쟁이 보여준 비인간적인 폭력과 야만성은 이성적 사고방식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전쟁으로 나타난 기존의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의문과 반발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났다. 철학분야에서는 사르트르의 주창으로 의문과 반발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났다. 철학 분야에서는 사르트르의 주창으로 실존주의가 대두되었고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사회 저변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예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노운영, 2006, p6).

앵포르멜 미술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정적 추상(abstraction lyrique) 혹은 얼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점과 얼룩, 드리핑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타시즘’이라고도 부른다. 즉 앵포르멜 미술 안에는 ‘타시즘’, ‘서정적 추상’ 그리고 모래, 점토 등 재료를 강조하는 ‘마띠에르 회화’등이 전부 포함된다. 앵포르멜 미술에 해당되는 여러 용어들은 작가들마다 개성의 차

이는 있지만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직관과 자유로운 자발성을 강조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며 기하학적이고 구체적인 미술형태와 대비된다고 볼 수 있었다(정민옥, 2010, p4).

2) 반문화(Anti-cultural)

장 뒤뷔페는 1949년에서 1968년 사이 발표한 『문화적 예술 보다 더 좋은 아르브뤼(L'Art Brut Préféré aux Arts Culturels)』와 『반문화적 입장(Position Anticulturelle)』, 『질식시키는 문화(asphyxiante culture)』 등을 통해서 서구문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술의 개념이 문화의 개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다운 미술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문화로부터 오는 모든 관념에서 탈피하여 절대적인 독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간주되는 선언문이다(J. Dubuffet, 1973, p102).

그는 서구문화의 특징 중 가장 먼저 이원적 사상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서구의 문화는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해 있으므로 인간의 존재와 나머지 자연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안소연, 1992, p96).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자 척도라는 개념이 뿌리박혀 자연을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화현대미술연구회, 1994, p253). 이러한 이원적 사고는 미에 대한 의식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 모든 사물을 선(善)과 악(惡), 미(美)와 추(醜)의 개념으로 양분하였던 전통적인 잣대는 매우 부질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장 뒤뷔페는 반드시 존재하되 어떤 것인지 알아낼 길 없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미 개념에서 탈피하여 미와 추를 가려내려는 분류 방식을 포기 할 때 비로소 해결책 없는 논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안소연, 1992, p97). 수세기 동안 서구사회에 뿌리박힌 미학적 가치와 잣대를 거부하였고, 이 점에 대한 반성적 태도는 마티에르의 본성 환기라는 방법을 통해 그의 작품 속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장 뒤뷔페는 전통미술 뿐만 아니라 형식적 가치를 가진 모던아트(modern art)에도 반감을 가졌다(양갑인, 2004, p15). 이는 입체주의에서

조형구조를 지배했던 입체주의적 규칙에 대한 반감이었던 것이다. 장 뒤뷔페는 지성에 의해 구축된 조형물 보다는 근원적인 이야기와 원시적인 도식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는 서구의 문화를 거부하는 철저한 반문화적인 입장에서 원시인, 어린이와 광인들의 예술을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또한 그는 1968년에 발표한 ‘질식시키는 문화(asphyxiate culture)’에서 종교와 문화의 계급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힘과 건강을 주장하는 창조적 사고는 수평적 증식의 형태를 가지며, 계급이나 조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이고 따라서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범한 인간들의 참된 일상생활로부터 유리되고 대중성을 상실한 문화는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화현, 1994, p254).

장 뒤뷔페가 전통이나 유행하는 양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사고와 작품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반문화적인 성향과 입장의 고수가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서구 문화에 대한 반감과 기성의 가치들을 거부하는 장 뒤뷔페의 반문화적인 성향으로부터 ‘아르 브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3) 아르 브뤼(Art Brut)

아르 브뤼(art brut)의 사전적 정의는 ‘가공되지 않은, 순수 그대로의 예술’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이다. 장 뒤뷔페는 아르 브뤼를 “즉흥적이고 지극히 창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작품 활동으로, 흔히 얘기하는 예술이나 상투적인 문화와는 거의 연류된 바 없는 예술을 말한다. 그 작가들은 직업적인 미술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익명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장 루이 페리에, 김정화 역, 1990,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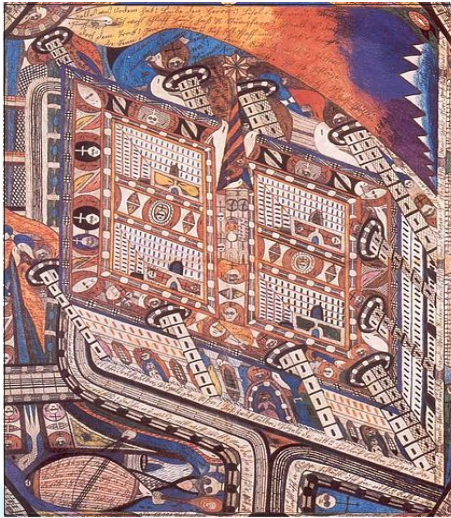
1994년 장 뒤뷔페는 개인전 이후 여러 문학가, 시인, 소설가 등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장 폴랑(Jean Paulhan)은 그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며 그의 그림을 ‘아르 브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뒤뷔페의 예술은 원생미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 워 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생미술을 표출시킨 동기로는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의 정신과 의사 한스 프린조른(Hans Prinzhorn)이 쓴 『정신병자에게서 나타나는 조형미술(bildnerische geisteskrankheiten)』(1922)에서 받은 영향에서 부터 시작된다(H.H 어네슨, 이영철 외 역, 1991, p464). 프린조른의 저서는 먼저 정신병자들의 작품을 순수예술 분야의 현대성을 남기고 있는 작품들과 아무런 편견 없이 대조해 보도록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고, 또 환자들의 작품에 대해 가장 직관적인 시각으로 그 조형양식을 고려해 보도록 권하였다. 따라서 병리학적 출처라는 사실로 인해 선입관에 사로잡혀 형태 관찰을 게을리 해 왔거나 그 예술성을 너무도 쉽게 포기해 버렸던 태도를 재고하게 한다(한은애, 2006, p40). 이러한 프린조른의 해석은 병리학적 자료로만 여겼던 정신병자들의 조형표현을 미학의 대상으로까지 격상시켰으며 나아가 동시대 예술 표현과도 연계시켜 보았던 점에서 그의 연구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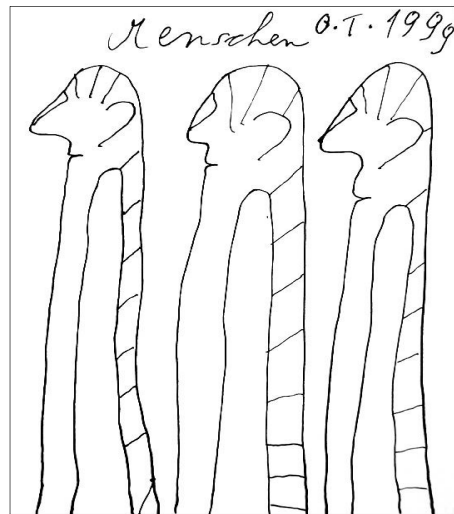
그 뒤 1945년 스위스를 여행하며 정신병원에서 정신이상자의 작품 컬렉션이 있음을 알게 되고 매료된다. 장 뒤뷔페는 정돈된 문화적 화단 밖, 지식인보다는 문맹인,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젊은이보다는 노인, 남자보다는 여자의 곁에 즐겨 피는 야생화 같은 그들 작품에 매혹된 것이다. 그는 아르 브뤼의 생산자가 되지 못하는 대신, 수집가가 된다(양갑인, 2004, p17).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작품을 기증 받을 수 있었고, 1947년 장 뒤뷔페는 파리의 방돔 광장에 있는 르네 드루앵(Rene Drouin)화랑에서 예술과는 무관하게 여겨지던 이 작업들의 수집물들이 전시되고, 1년 후 앙드레 브르통, 장폴랑, 샤를라통, 미셸 타피에등과 ‘아르 브뤼 협회’도 창설하게 된다. 뒤뷔페는 아르 브뤼 작품들을 수집하고 보호하며, 그의 반문화적 태도를 구체화 시키고 확고히 해 나갔다(양갑인, 2004, p17). 아르 브뤼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작가 오스발트 치르트너<그림23><그림24>가 있으며, 장 뒤뷔페는 본인 스스로도 <그림25><그림26>과 같은 아르 브뤼 성향의 작품 활동을 계속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뒤뷔페의 회화는 정신적 양식적 측면에서 아르 브뤼의 본질에 도달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 새로운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림 23> Wölfliband Hain Large
Oswald Tschirtner
Irren-Anstalt Band-Hain, 1910
출처: <http://ko.wikipedia.org>



<그림 24> Oswald Tschirtner
Menschen, 1999
출처: <http://www.outsiderart.de/galerie-bittel/kuenstler/tschirtner>



<그림 25> Jean Dubuffet
Dhôtel nuancé d'abricot, 1947
출처: <http://www.flickrriver.com/photos/32357038@N08/sets/72157618>



<그림 26> Jean Dubuffet
Carrot Nose, 1962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32357038@N08/5152222545/>

3. 장 뒤뷔페의 작품 연구

1) 마띠에르 탐구 시기(1943~1960)

마띠에르(matiere)는 물질이나 재료를 의미하는 불어로 종이나 캔버스 등 위에 바탕 재질을 붓놀림, 그림의 재료 등을 통하여 만들어 내는 기법상 화면의 재질감을 의미 한다(<http://postcolor.egloos.com/1746321>).

마띠에르 탐구시기에 장 뒤뷔페가 시도했던 표현적 특성에서 원시 미술적 요소와 오프바뜨, 아쌍블라주와 같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재료와 도구로 작품을 제작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원시미술(Primitive Art)

원시미술이란 인습적인 전통미술에 대한 반기(反旗)로 나타난 본질적 인간상을 찾으려는 자유로운 서정적 추상회화의 한 경향이다. ‘눈’과 ‘손’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려낸 적나라하고 창조적인 미술을 말한다(엄현신, 1999, p5). 현대회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원시미술의 기원을 살펴보면 원시미술은 가장 초기 단계 미술의 예이다.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원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 동굴 벽화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원시미술은 상징성이 강하고, 그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마치 원시 동굴벽화가 주술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냥 법을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과 같았다(소경진, 2007, p7).

원시 동굴벽화와 이집트 동굴 벽화와의 차이는 그린 사람이 단순한 화가가 아닌 그림과 상형 문자를 만들어 낸 문필가로 영혼의 세계를 믿으며 죽어서도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었다는 데 있었고, 이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감정을 중요시 여기며 죽은 자보다는 살아있는 것들에 관심을 더 갖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들의 원시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현대 미술에서 야수파 작가 모리스 브라맹크(Mourice Vlamink)가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아 아프리카 흑인 조각을 최초로 발표한 후 파블로 피카소(Pable Picasso), 아메디아 모딜리아니(Amedia Modigliani), 앙드레 드랭(Andre Derain), 헨리 마티스(Henri Matisse) 등은 모리스 브라맹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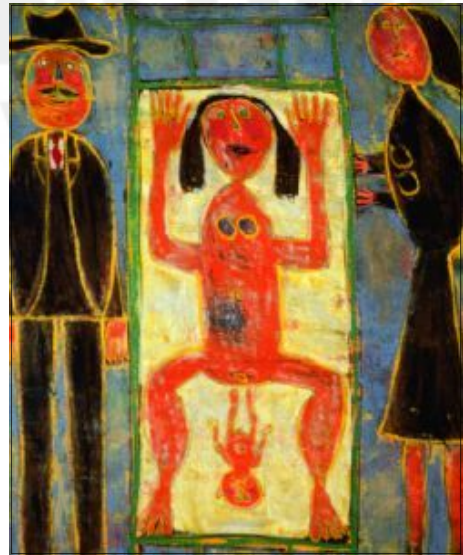
흑인 조각 시, 얼굴의 이목구비를 단순화한 양감표현과 원시적 왜곡에 영향을 받았다. 장 뒤뷔페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몸을 세련되지 않게 확대하여 과장되게 큰 손등을 표현함으로써 아이들의 순수한 느낌을 표현했으며 그라피티(graffiti)라는 벽을 긁어서 그린 그림과 같이 불투명한 색채와 재료의 다양성 등으로 프리미티브 작품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성과 단순성이 특징인 원시주의 미술은 최근 패션계에서도 원시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를 신세대 원시주의(new age primitive)라고 지칭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자연의 생태학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해 인간의 본성을 표출시키는 원시 미술이 대두되는 것은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시미술의 조형원리는 곧 아르 브뤼의 원리이자 뒤뷔페의 반문화적 예술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림 27> Jean Dubuffet
Madame Mouche, 1945

출처: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h2>



<그림 28> Jean Dubuffet
L'Accouchement 1994

출처: http://www.frieze.com/issue/review/jean_dubuffet/

(2) 오프 바뜨(Hautes Pates)

1944년에 열린 ‘오프 바뜨(hautes pates)’전(展)은 재료간의 혼합과 반발로 우연성과 재료가 지닌 물질성을 강조한 전시였다. 물질성의 강조는 ‘새로운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가능한 한 비회화적인 물질을 회화 속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고전적 재료의 한계를 극복했을 때 회화라는 하나의 정해진 평면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오광수, 1982, p152). 그의 비(非)회화적인 물질의 발견은 소외되고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꺼운 반죽’을 의미하는 오프 바뜨 기법이란 백연이나 우유 등을 발라 다소 끈적거리게 된 화면의 바탕 위에 그간 회화의 영역에서는 사용된 바 없었던 비회화적 재료들, 즉 아스팔트, 진흙, 조약돌, 모래, 노근, 먼지, 색유리 파편, 상표, 은박지 등을 첨가한 후 붓 대신 손가락이나 칼, 숟가락, 포크, 못 등 생호라 주변의 도구를 이용하여 형상을 남기는 방법이다(이지영, 2005, p16). 그 오프 바뜨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전에서 일반적으로 미술재료에서 쓰지 않는 다양한 재료를 섞어 <그림29><그림30>과 같이 마티에르 감각을 내면서 물질성을 강조하였다.

미술사에서 장 뒤뷔페 이외에도 그림에 이물질들을 첨가하여 화면을 두껍게 만든 경우가 선례에 있다. 1930년대에 독일의 바우마이스터(Willi Baumeister)와 빈터(Fritz Winter)등의 화가가 물감에 두께를 두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큰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장 뒤뷔페의 오프 바뜨 기법 이후, 이 기법을 새롭게 조명한 작가는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이다. 1943년 연작 ‘인질(hostage)’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인질시리즈에서 인간은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마티에르의 물질적인 존재로서 표현되었다(김현화, 1999, p293). 인질 시리즈<그림31>는 전쟁의 처참한 경험 가운데 동료 레지스탕스들이 처형당하는 비참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석고반죽, 가루 염료, 다양한 종류의 잉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여태까지 어떤 현대 미술가도 상처나 멍든 자국, 피를 흘리고 있는 육신을 <그림32>에 나타난 것처럼 절망감으로 표현한 예가 없다. 이처럼 포트리에의 작품에서 보이는 오프 바뜨 기법은 마티

에르의 자율성에 가치를 둔 것이라기보다는, 두껍게 발라 올린 물감의 특성에 변화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정민옥, 2010, p17).



<그림 29> Jean Dubuffet
Châtaîna aux hautes chairs, 1951
출처: <http://oseculoprodigioso.blogspot.kr/2007/01/dubuffet-jean-ar>



<그림 30> Jean Dubuffet
Haute pâte sur panneau, 1945
출처: <http://www.applicat-prazan.com/artistes/2011/jean-dubuffet/>



<그림 31> Jean Fautrier
Head of a Hostage, 1944
출처: http://www.all-art.org/art_20th_century/fautrier1.html



<그림 32> Jean Fautrier
Hostage, 1943
출처: <http://www.applicat-prazan.com/artistes/2011/jean-dubuffet/>

(3) 아쌈블라주(Assemb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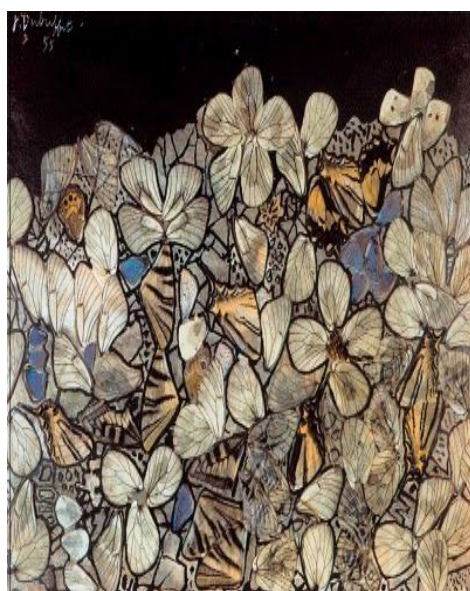
장 뒤뷔페의 재료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아쌈블라주(asssemblage)회화로도 드러난다. 평면적인 회화에 3차원적 효과를 주는 기법으로 ‘오브제’를 써서 만든 3차원적 콜라주나 콜라쥬 조각을 말한다. 브라크, 피카소, 피카비아 뒤샹등도 시도하였지만 ‘아쌈블라주’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것은 장 뒤뷔페였다(박인, 1984, p40). 장 뒤뷔페의 아쌈블라주는 자연물을 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 인식하고 우연히 취해진 파편들이 배치되는 과정 중에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연적 형상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오프 바뜨에서 보여진 재료의 자율성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었다.

장 뒤뷔페는 비정형성을 보이며 진흙, 쓰레기 오물 속에서 재료의 가치와 특이성, 자발성, 우연의 원칙을 추구하였다. 대다수의 아르 브뤼 작가들은 브리콜라쥬(bricolage)로 소재의 임의적 사용을 즐겼는데, 뒤뷔페 역시 자갈, 이긴 흙, 나무껍질, 나뭇가지, 스펀지, 조개껍질, 돌, 나비 날개, 알루미늄 호일 등 정통성을 벗어난 소재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영감과 독창성을 발휘하였다(신은주, 1998, p14). 이렇듯 다양한 자연 재료에 대한 관심이 작품에 적용되었고, 특히 나비날개와 나뭇잎을 작품에 직접 붙인 <그림33>,<그림34>,<그림35>,<그림36>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인간과 배경이 서로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 속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와 표현법은 당시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장 뒤뷔페의 마띠에르 물질 탐구시기를 통해 그의 회화에 있어 원시미술, 즉 자연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관심과 오프 바뜨와 아쌈블라주 작업과정은 그의 예술 형성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것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재료의 자율성과 우연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림 33> Jean Dubuffet
Butterfly-Wing-Figure, 1953
출처: http://www.andreyavivaldi.com/HSAC_2011/ASSEMBLAGE/assembl



<그림 34> Jean Dubuffet
Jardín nacarado, 1955
출처: <http://it-is-snowing-in-nakonxipan.blogspot.kr/2010/08/jean-dubuff>



<그림 35> Jean Dubuffet
Cheveux de Sylvain, 1953
출처: <http://artalog.net/artwork/artwork.php?id=54>



<그림 36> Jean Dubuffet
Jardin de Bibi Trompette, 1955
출처: <http://acgraves.blogspot.com/2010/08/jean-dubuffet.html>

2) 우를루프 탐구 시기(1960~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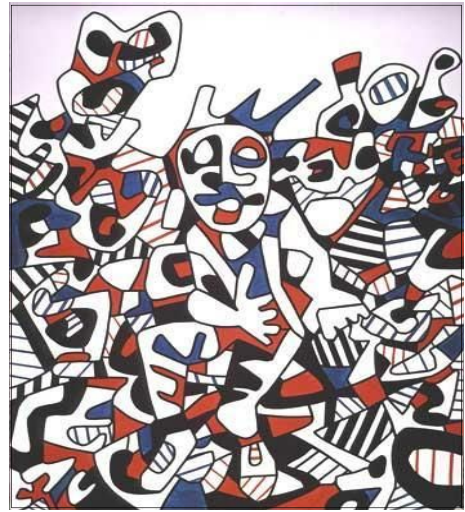
1962년 7월에 시작되는 그의 우를루프(L'Hourloupe) 시리즈의 전환은 예술창작의 목표를 새로운 것의 발명에 두고 있는 장 뒤뷔페의 작업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우를루프는 '루(lope, 늑대)'와 '앙트루브(entourloupe, 탐욕스러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 이 말은 그 발음만으로도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를루프는 1962년 여름, 제작된 책 제목인데, 이 책에는 뒤뷔페가 만들어낸 방언으로 쓰여진 텍스트와 함께 하얀 바탕에 붉은 색과 파란색으로 그린 데생을 잘라서 붙인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정민옥, 2010, p22). 우를루프의 시작은 우연한 발견에서 출발하였다. 1962년, 장 뒤뷔페는 전화를 받던 중 종이위에 붉은 볼펜으로 긁적었던 이미지들을 검은 바탕위에 붉고 푸른 그리고 흰빛의 선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그림은 자유로운 형태임과 동시에 추상적인 형상이었으며 마치 생명의 기원인 인간 형상과도 같다고 느꼈던 것이다.

우를루프는 장 뒤뷔페의 전 작품을 통틀어 가장 많이 알려졌으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작품 군이다. 뒤뷔페의 접근을 특정 짓는 것은 비뚤어진 형태의 수백 가지 모티프가 끝없이 서로 소통하며 변화하는 모습이다. 마치 증식중인 세포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띠에르의 무더기가 융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유기체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선으로 다듬어지고 연결되는 기괴한 형태의 효과를 내는 그림을 창출해냄으로써 장 뒤뷔페는 사실적인 것과 비정형, 선명한 색조의 단색화와 같이 함축된 자연의 것과 인공의 것을 교차 시켜 드로잉과 회화 그리고 조각 하나로 융합된 단일체 형식을 보여주었다(엄현신, 2000, p9). 이러한 우를루프의 언어는 매우 암시적이고 마음대로 그려진 서술 방식에 점점 모호한 형태로 대상들을 나타내었으며, 통일감을 주기 위해 무의식적인 배합들을 나타내었다. 또한 우를루프 시리즈는 장 뒤뷔페가 창조한 가장 중요한 작품이며 가장 큰 변화이다. 그리고 마띠에르 시기의 작품보다 더 강하게 그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초기에 볼펜의 낙서로 시작된 우를루프 양식은 다양한 변화를 통해 회화, 조각, 건축, 그리고 무대로까지 이르게 됨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7> Jean Dubuffet
Cycle de L'Hourloupe, 1978
출처: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h>



<그림 38> Jean Dubuffet
Serie des sites tricolores(cycle de L'Hourloupe), 1974
출처: <http://aphorismes.over-blog.net/article-6305033.html>



<그림 39> Jean Dubuffet
Nung Stans, 1965
출처: <http://www.poemlane.com/bbs/zboard.php?id=moeum&page=1>



<그림 40> Jean Dubuffet
LE LIT I, 1964
출처: http://www.artcurial.com/en/news/press_releases/2011/2011_



<그림 41> Jean Dubuffet
Beast, 1969
출처: <http://uploads8.wikipaintings.org/images/jean-dubuffet/monument>



<그림 42> Jean Dubuffet
Group de quatre arbres, 1972
출처: http://www.dubuffetfondation.com/sculptures/4arbres_ang.htm



<그림 43> Jean Dubuffet
Jardin d'hiver, 1969~70
출처: <http://www.dubuffetfondation.com/sculptures>



<그림 44> Jean Dubuffet
The Gossiper II, 1969~70
출처: <http://www.nashersculpturecenter.org/object.aspx?ObjectID=21>

3) 추상회화 탐구 시기(1974~1985)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 뒤뷔페는 우물루프에 대한 집착을 조금은 벗어나 새로운 작품경향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우물루프의 특성인 선 그리기, 세포질 이미지, 자연주의적인 색채 등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이전의 작품들 보다는 보다 활성화 되고 속도감이 더해지면서 이미지의 자연성은 확고해져갔다. 캔버스 위에는 혼합, 분리, 초점, 무시 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통해 특정한 한 순간의 한 장면을 선택하는 전통적인 그림기법에 도전하였다(정민옥, 2010, p31). 그것이 바로 <그림48>에 표현된 독특하게 삭제된 이미지와 크기의 대비, 화려한 패턴, 자연적 이미지 혼합 등 창의적이면서 독특한 그만의 기법을 확립해 나가면서 조합기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갔다. 1983년도에 이르러 그는 혁명적인 시리즈물을 다시 발표하게 된다. <그림45><그림46><그림47>이 ‘조준(mire)’라고 하는 시리즈이다. 보다 커진 연속체의 조각들이 이미 쓴 종이를 사용해 설계기법의 증식을 나타내고 있다. 장 뒤뷔페는 흐르거나 튀겨서 페인트에 의해 우연적인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붓 움직임을 개발해 보다 역동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처럼 장 뒤뷔페의 작품들은 그의 삶처럼 확일적이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경향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반문화적 성향과 그의 근본적 미에 대한 생각과 사상은 그의 미술세계와 작품에서도 절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재료에 대한 그의 탐구와 도전 정신은 단순한 물감에서 벗어나 자연 재료에서 그 해답을 얻게 하였고, 캔버스가 아닌 조형물 등 2D, 3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경향과 이미지를 선보였다.



<그림 45> Jean Dubuffet
Mire G 127, 1983

출처: http://www.artknowledgenews.com/21_01_2012_22_55_11_jean_dubuffets_life_explored_in_new_exhibitio



<그림 46> Jean Dubuffet
Mire G 106, 1983

출처: http://www.artknowledgenews.com/21_01_2012_22_55_11_jean_dubuffets_life_explored_in_new_exhibitio



<그림 47> Jean Dubuffet
Mire G 111, 1983

출처: <http://www.wikipaintings.org/en/jean-dubuffet/mire-g21>



<그림 48> Jean Dubuffet
Theatre De Momoire, 1977

출처: <http://www.liveauctioneers.com/item/9378548>

제 3 장 작품제작

제 1 절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1. 작품제작 의도

아트메이크업이 가진 예술적 특성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작품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회화작품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작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술회화 작품이 바디페인팅으로 표현된 작품 사례들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장 뒤뷔페에 대해 연구하고 그의 작품을 아트메이크업으로 응용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본 작품 제작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확고한 예술적 가치관과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선보인 장 뒤뷔페를 선택하여 연구하였고, 장 뒤뷔페의 예술적 특성과 앵포르멜 및 반문화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1960년대 이후의 작품 6점을 선정하였다. 60년대 이후의 작품을 선정한 배경에는, 장 뒤뷔페의 작품 활동을 살펴보면 다양한 화풍의 작품을 제작하고 시도한 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 60년대 이후부터 작가의 작품 활동 중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우를루프’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각과 건축물에 이어 1970년 이후에는 추상회화에 이르기까지 더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우를루프의 단순한 색의 조합과 선으로 표현하는 그의 독특하고 같은 듯 다른 장 뒤뷔페 만의 스타일을 발전된 양상으로 선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60년대 이후의 작품을 주목하게 되었다. 작품을 선정하여 획일적인 아트메이크업의 전형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작품 6점을 제작해 보았다.

2. 작품제작 방법

장 뒤뷔페의 60년대 이후의 작품들 중 우를루프 스타일의 작품 2점, 아르브뤼 특성이 드러난 작품 2점, 추상회화를 위주로 한 작품을 선정하여 그의 작품세계와 특성이 드러나는 작품 6점을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선정된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아트메이크업 중 신체의 25%를 활용하는 환타지 메이크업을 기준으로 작품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 뒤뷔페의 평면적인 회화작품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색의 조화와 선적인 느낌의 그림들을 표현하기에는 페이스페인팅이나 바디 페인팅 보다는 얼굴에서 데콜테까지 표현하는 환타지 메이크업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작하였다. 장 뒤뷔페의 회화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성컬러 물감으로 회화적 기법을 이용하였다.



제 2 절 작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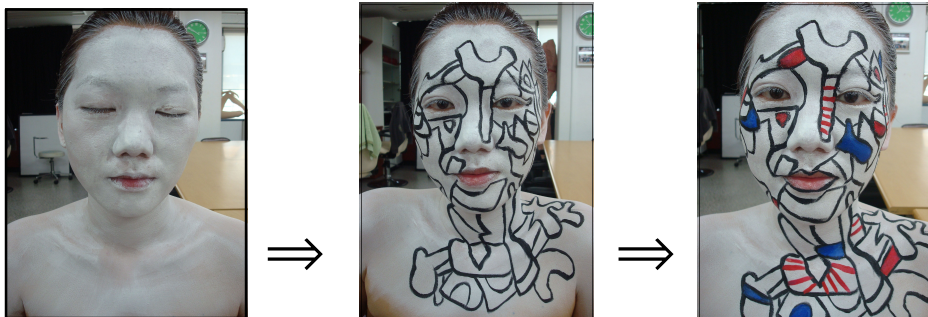
1. 우를루프

마치 세포가 증식하는 것 같은 우를루프 이미지들은 흰 배경이 주조색이 되어 그 위에 비정형적인 형태의 문양들이 끊임없이 연결이 된다.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곳에 움직임에 더 힘을 싣게 해주는 메인 컬러인 빨강색과 파랑색을 스트라이프와 채워 넣기 기법으로 색을 가미해준다.

[표 2] 우를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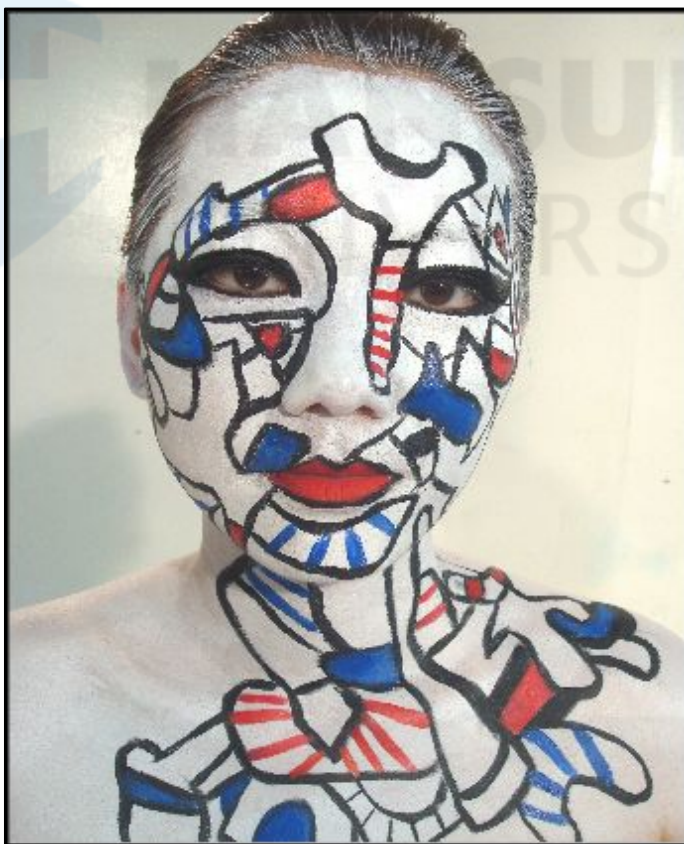
작품제작 방법	
재료 및 도구	- 수성컬러 물감, 브러시, 스폰지
표현기법	- 넓은 브러시로 배경이 되는 얼굴부터 데콜테까지 흰색으로 표현하고, 색감을 더욱 잘 나타내기 위해서 스폰지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짙어서 표현 - 얇은 브러시를 이용하여 얼굴과 목선을 이어 형태와 모양을 율동감 있게 표현 - 자리 잡은 형태에 빨강색과 파랑색을 이용해 스트라이프로 조화롭게 색을 채워 표현
컬러	- 흰색,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작품제작 과정





<그림 49> Jean Dubuffet
Main least et rescousse, 1967
출처: <http://waitsfieldart.blogspot.kr/2012/01/jean-dubuffet.html>



<작품 1> 우를루프

2. 우를루프-초상화

우를루프 스타일의 장 뒤뷔페의 자화상을 응용하여 초상화를 제작해보았다. 우를루프의 특징인 흰색 배경과 선적인 느낌의 형태를 바탕으로 색과 형태를 구조적으로 배치해 표현하였다.

[표 3] 우를루프-초상화

작품제작 방법	
재료 및 도구	- 수성컬러 물감, 브러시, 스폰지, 펜슬 아이라이너
표현기법	- 넓은 브러시로 배경이 되는 얼굴부터 데콜테까지 흰색으로 표현하고, 그 색을 더욱 나타내기 위해서 스폰지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짙어 줌 - 눈, 코, 입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여 선과 형태를 표현했고, 데콜테에는 셔츠를 입은 듯이 선을 그려 표현 - 음영과 형태를 효과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빨강색, 파랑색을 이용하여 선과 면적을 표현
컬러	- 흰색,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작품제작 과정





<그림 50> Jean dubuffet
Self Portrait, 1966

출처: [http://blog.naver.com/
PostThumbnailView.nhn?blogId=h2s](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h2s)



<작품 2> 우를루프-초상화

3. 아르 브뤼 I

장 뒤뷔페의 반문화적 성향은 미에 대한 기준과 예술에 대한 관점까지 달리한다. 아르 브뤼는 정신이상이나 환자들 혹은 그림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을 뜻하며, 장 뒤뷔페는 그러한 작품에 심취하여 자신의 작품에도 아르 브뤼적 성향이 드러내고 있다. 그는 마치 낙서를 하듯 그림을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이미지와 선을 자유롭게 만들어 순수한 예술 세계를 추구하였다.

[표 4] 아르 브뤼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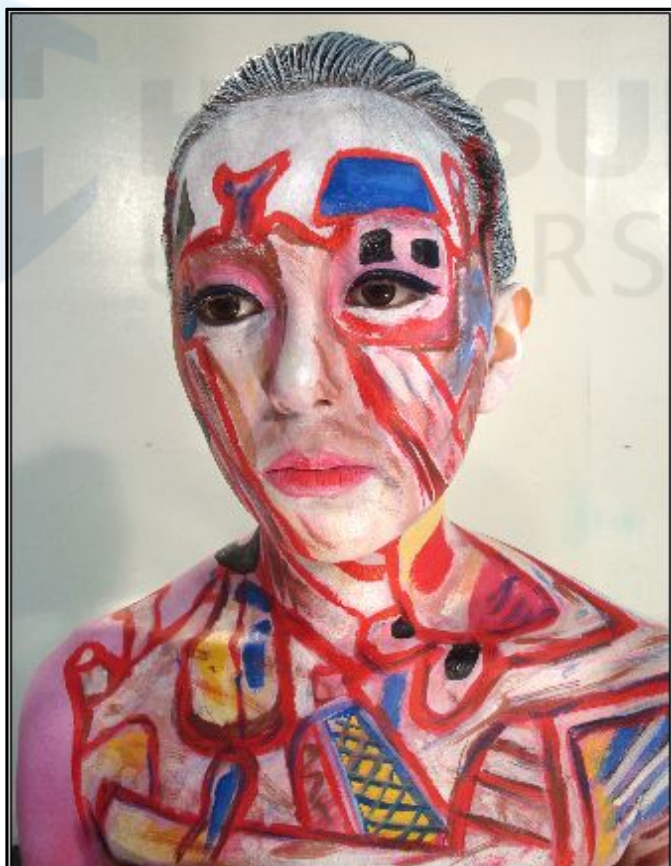
작품제작 방법	
재료 및 도구	- 수성컬러 물감, 브러시, 액상 아이라이너
표현기법	- 분홍빛으로 배경이 되는 색을 전체 퍼 바르고, 빨강색 선으로 집과 길의 형태를 불규칙하게 배치 - 파랑색, 노랑색, 검정색 등 지붕과 형태를 채우는 느낌으로 표현 - 마지막으로 선들과 선들이 연결시켜 주었고, 아르 브뤼의 우연성에 의해 그려진 선과 계획되지 않는 느낌의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 낙서한 듯 한 느낌으로 선을 표현
컬러	- 흰색, 분홍색,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검정색

작품제작 과정





<그림 51> Jean dubuffet
Campagne heureuse, 1975
출처: http://www.dubuffetfondation.com.oeuvres_bio/lieuxabrege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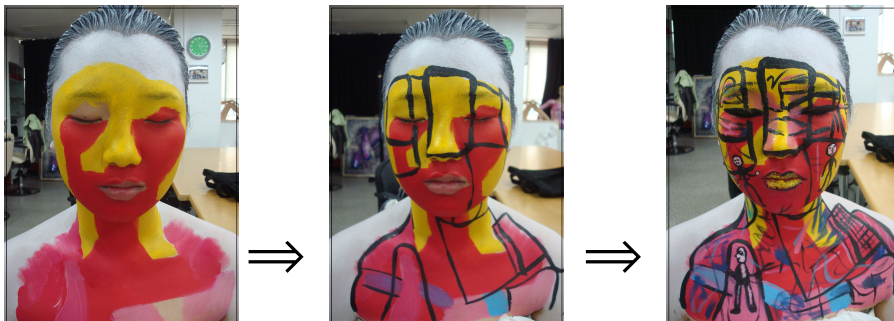
<작품 3> 아르 브뤼 I

4. 아르 브뤼II

추상회화 작품을 제작할 시기에도 그의 작품에서는 그의 마띠에르 즉, 재료에 대한 탐구와 아르 브뤼적인 성향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의 추상회화 작품에서 색감과 컬러는 강렬하게 쓰고 있으나, 선과 형태를 나타낸 이미지에서는 우연성에 의한 선과 구조 자칫 지저분해보일 수 있을 만큼 낙서처럼 그어진 수많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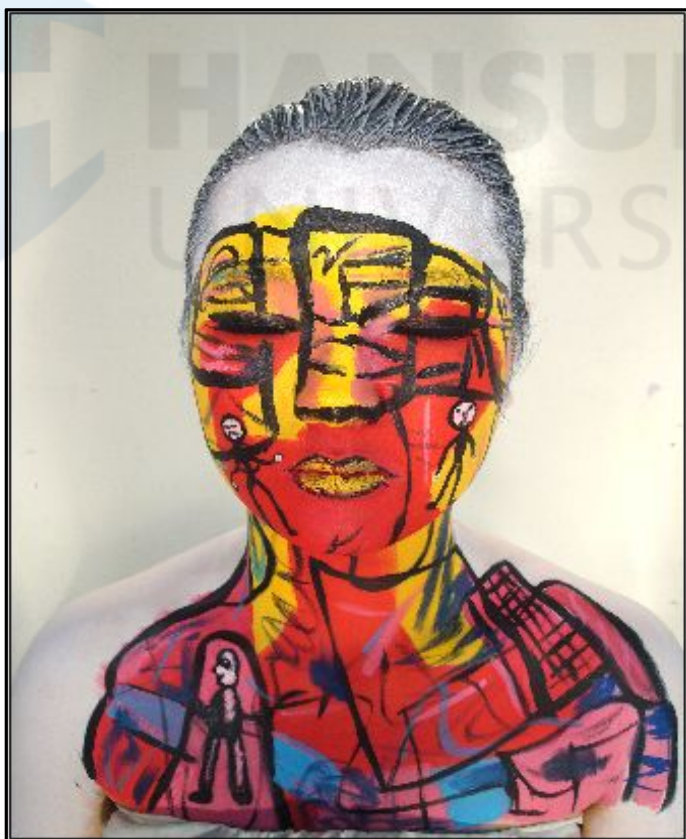
[표 5] 아르 브뤼II

작품제작 방법	
재료 및 도구	- 수성컬러 물감, 브러시, 스폰지, 펜슬 아이라이너
표현기법	- 빨강색, 노랑색, 흰색을 배경으로 그려진 선들의 위치와 얼굴 형태를 고려하여 배경색 표현 - 전체적 아웃라인 형태를 구조적으로 사각형이 박스들의 위치를 배치했고, 이 이미지는 곧 집과 길이 되는 연결된 이미지임을 뜻함 - 사각형 박스 안에 인물들과 선들 포인트가 되는 파랑과 검정색으로 표현 - 마지막으로 낙서처럼 보이기 위해 가는 붓으로 빈 공간에 수많은 선으로 표현
컬러	- 흰색, 노랑색, 빨강색, 검정색, 파랑색
작품제작 과정	





<그림 52> Jean Dubuffet
 Good prognosis, 1975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32357038@N08/5153845093/>



<작품 4> 아르 브뤼 II

5. 추상회화 I

장 뒤뷔페의 추상회화 작품 중 비교적 경쾌한 컬러감의 작품이다. 우를루프 시기 이후, 주로 장 뒤뷔페의 작품은 흰색과 빨랑색, 파랑색으로 주조색을 이루거나 어둡거나 강렬한 컬러감이 많았으나 파스텔 톤의 컬러와 선적으로 표현된 작품에서 유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표 6] 추상회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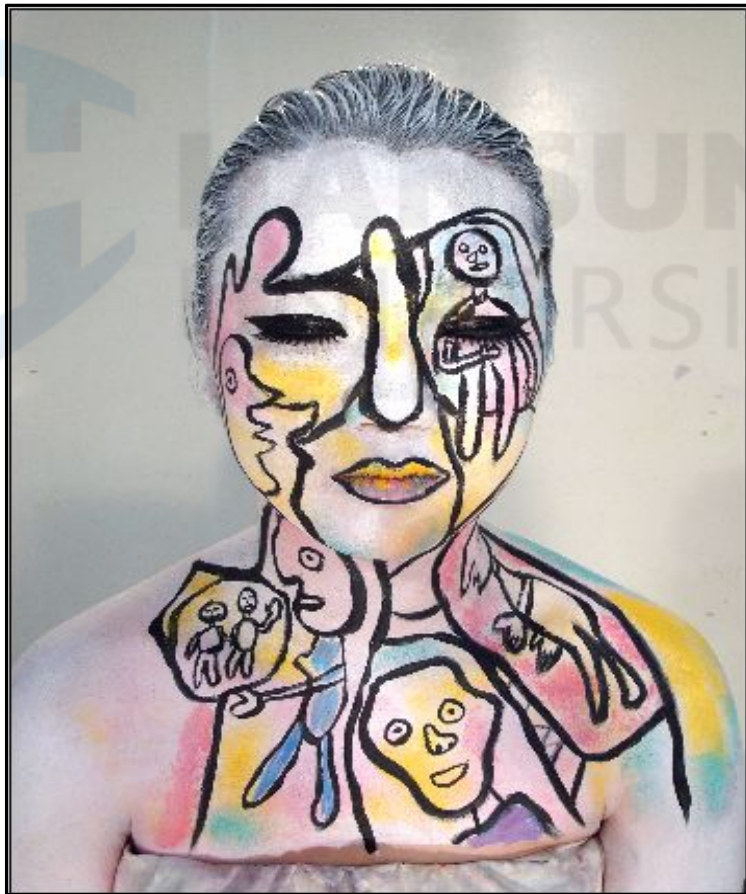
작품제작 방법	
재료 및 도구	- 수성컬러 물감, 브러시, 스폰지
표현기법	- 전체적으로 얇게 흰색 컬러를 펴 발라주고, 부분적으로 분홍색, 노랑색, 연두색을 스폰지로 찍어서 자연스러운 컬러와 느낌으로 연출 - 그림에 7명의 인물을 그려 넣기 위해서 얼굴과 데콜테에 모델의 이목구비를 고려하여 그림을 표현 - 그려 넣을 사람의 위치를 정하여 나머지 공간에 연결되어 지는 선과 모양을 그려주고, 공간에 울동감을 주기 위해 노랑색, 분홍색, 녹색으로 표현
컬러	- 흰색, 노랑색, 분홍색, 녹색, 검정색

작품제작 과정





<그림 53> Jean Dubuffet
 paysage rose avec 7 personnages, 1975
 출처: <http://www.guardian.co.uk/artanddesign/2012/mar/10/this-weeks-new>



<작품 5> 추상회화 I

6. 추상회화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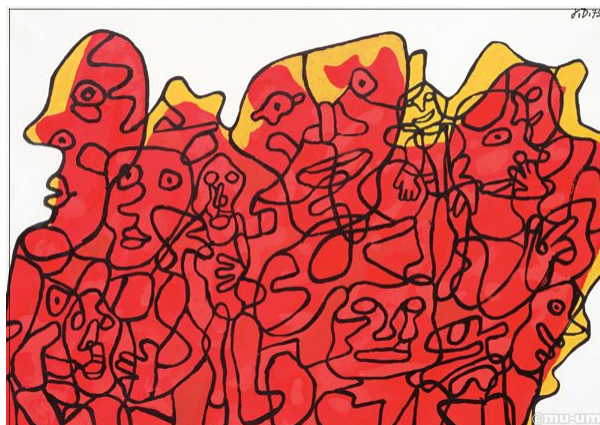
장 뒤뷔페의 추상회화 이미지들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의 우를루프 성향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적인 느낌의 형태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면서 이미지를 형성해 갔다. 이 작품에서는 그의 원시미술에 대한 관심과 성향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색과 형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7] 추상회화Ⅱ

작품제작 방법	
재료 및 도구	- 수성컬러 물감, 브러시, 스폰지, 액상 아이라이너
표현기법	- 빨강색, 노랑색, 흰색이 배경이 되는 위치에 색을 넓은 브러시로 색을 펴 발라 줌 - 검정색 선으로 끊임없이 선을 형성하여 사람 얼굴과 인체의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어 줌 - 평면적 회화작품이기 때문에 선을 코와 아이라인, 입술라인을 살려서 선의 위치를 고려하여 형태를 만들어 줌
컬러	- 빨강색, 노랑색, 흰색, 검정색

작품제작 과정





<그림 54> Jean Dubuffet
 무제, 1974
 출처: http://www.mu-um.com/exhibition/exhibition_view.php?idx=1322



<작품 6> 추상회화Ⅱ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면서 예술 창작물은 새롭게 진화를 거듭해왔다. 예술가의 사고 전환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창작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경계의 벽을 유연하게 하면서 새로운 창작물을 새롭게 재창조해 내기도 한다. 이것은 근대의 문화와 예술계의 전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탈장르화이며 다양화를 뜻할 수 있을 것이다. 아트메이크업 또한 예술의 한 장르로서 진화하고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예술회화 분야와 패션을 접목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시킨 경우는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상과 달리 메이크업에서는 순수 예술 작품을 응용한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메이크업과 회화작품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작품을 제작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 뒤뷔페의 회화 작품 중, 작가의 예술적 특성과 가치관, 앵포르멜 및 반문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60년대 이후의 자유롭고 율동성 있는 작품 6점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작품을 중심으로 선명하면서도 단순한 색들의 조합과 우연성에 의해 그려진 선이미지와 결부시켜 새로운 예술세계로 작품을 제작해 보았다.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아트메이크업의 정의와 특성, 아트메이크업의 종류와 재료 및 도구,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본 연구자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 아트메이크업의 종류를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류법인 페이스페인팅,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페인팅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아트메이크업 중 환타지 메이크업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환타지 메이크업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장 뒤뷔페의 삶과 미술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삶과 작품에 투영된 그의 철학적 사상과 경향은 국내외 관련 문헌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의 작품 세계는 마띠에르 탐구시기와 우를루프 탐구시기, 추상회화 탐구시기로 나누어 일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문헌과 인터넷 사진 자료를 통하여 장 뒤뷔페의 작품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우를루프 시리즈 스

타일의 작품 2점과 아르 브뤼 성향의 우연성에 의한 선과 색감 표현이 특징인 작품 2점 그리고 색감은 달리하지만 우를루프 성향의 선적으로 표현된 추상회화 2점의 작품을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작품제작을 통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 뒤뷔페는 앵포르멜, 즉 비정형과 반문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미적 기준과 잣대를 지닌 그의 예술적 성향을 기반으로 ‘아르 브뤼’라는 마치 아이가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순수한 예술세계를 보여주었다. 장 뒤뷔페를 기준으로 아르 브뤼의 명칭과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의 미술 작품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둘째, 장 뒤뷔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를루프 시리즈’이다. 선과 형태가 증식되어가는 듯 한 유기적인 형태와 색채를 유지하면서 회화작품과 조각 및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제작· 시도하였다. 이는 장 뒤뷔페를 대변할 만한 작품들이며, 우를루프 스타일의 작품들은 70년대 이후 추상회화 시기에서도 다양한 색채와 함께 다른 듯 연결된 작품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앵포르멜 및 반문화에 대한 확고한 장 뒤뷔페의 신념과 순수예술에 대한 그의 갈망은 그의 작품세계와 다양한 창작 활동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그의 자유롭고 선명한 느낌의 작품들을 아트 메이크업으로 제작해본 결과, 단순한 컬러의 조합과 선적인 표현으로도 다채로운 느낌의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형태에 대한 본 연구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현재 메이크업에 관한 많은 전문 서적과 참고문헌, 논문자료들은 많이 있지만, 메이크업과 회화를 접목시킨 선행 논문이 많지 않았다. 특히 장 뒤뷔페의 작품이 아트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분야 전반에 연구되어진 바가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회화작품이 아트메이크

업으로 응용된 사례가 적어 작품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장 뒤뷔페 뿐만 아니라 미술회화작품과 메이크업과의 연관성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트렌드에 민감함 메이크업 분야인 만큼 예술적인 부분과 연관시켜 새로운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제작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도서-

- 곽대웅(1990), 『디자인공예대사전』, 서울 : 미술 공론사.
- 김영희 외(2001), 『토틸메이크업』, 서울 : 정문각.
- 김현화(1999), 『20세기 미술사 -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서울 : 한길아트.
- 김효정(2003), 『메이크업-이론과 실제』, 서울 : 학연사.
- 노버트 리튼(1993), 윤난지 역, 『20세기 미술』, 서울 : 애경.
- 박보영 외 3명(2002), 『메이크업 아트』, 서울 : 청구문화사.
- 방수진(2001), 『Make-up Art』, 서울 : 청구문화사.
- 오광수(1982), 『서양근대 회화사』, 서울 : 일지사.
- 오인영 외(2010),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 훈민사.
- 이상훈(2007), 『메이크업 예술 기법』, 서울 : 도서출판 들샘.2
- 이화현대미술연구회(1994), 『현대미술의 동향』, 서울 : 눈빛.
- 장 루이 페리에, 김정화 역(1990), 『20세기 미술의 모험』, 경기 : 도서출판이피이피인터내셔널.
-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 사전』, 서울 : 신광출판사.
- 한석우(1991), 『입체조형-이론과 실제』, 서울 : 미진사.
- H.H 에네슨, 이영철 외 역(1991), 『현대미술의 역사』, 서울 : 도서출판빛.
- Michel Ragon(1966), 『새로운 예술의 탄생』, 서울 : 문화교육출판사.

- 학위 논문 -

- 강현신(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바디 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주영(2012), 「바디 페인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채원(2007), 「근육움직임을 이용한 바디페인팅 퍼포먼스 연출에 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은선(2009),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연구: 표현방법 및 사용 재료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운영(2006), 「장 뒤뷔페의 앵포르멜 충동의 표현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 기초유물론과 이중학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1984), 「Dubuffet의 표현적 요소와 MATIERE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경연(2011), 「지역문화축제에서 페이스페인팅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함평 나비대축제와 페이스페인팅 선호유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선(2011), 「조선시대의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경진(2007), 「원시미술의 연구: 현대미술의 표현 양식과 다원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원선(2012), 「아트 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은주(1998), 「장 뒤뷔페(Jean Dubuffet) 작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갑인(2004), 「장 뒤뷔페(Jean Dubuffet) 예술세계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현신(1999), 「장 뒤뷔페의 작품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05), 「Jean Dubuffet의 반문화 예술론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선(2010), 「한국 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옥(2010), 「장 뒤뷔페(Jean Dubuffet) 작품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지(2011),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애(2006), 「패션 일러스트에 나타나나 아르브뤼(Art-Brut)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 안소연(1992), 「장 뒤뷔페의 반문화 예술론」, 『현대미술사연구』 Vol.2, 현대미술사학회, pp.95-112

- 인터넷 자료 -

<http://www.johnelkington.com/weblog>(검 색 일.2012.5.4)
<http://www.berberian.fr/michelberberian>(검 색 일.2012.5.4)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검 색 일.2012.5.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검 색 일.2012.5.8)
<http://www.guggenheim.org/new-york/collections>(검 색 일.2012.5.8)
<http://www.google.co.kr>(검 색 일.2012.5.11)
<http://contemplativetherapy.com>(검 색 일.2012.5.18)
<http://ko.wikipedia.org/wiki>(검 색 일.2012.5.18)
http://www.all-art.org/art_20th_century/fautrier1.html(검 색 일.2012.5.18)
<http://www.domusweb.it/en/art/10000>(검 색 일.2012.5.18)
<http://www.sme.sk/c/1693863>(검 색 일.2012.5.18)
<http://www.outsiderart.de/galerie-bittel/kuenstler>(검 색 일.2012.5.23)
<http://artalog.net/artwork/artwork.php?id=54>(검 색 일.2012.5.23)
<http://www.dubuffetfondation.com/sculptures>(검 색 일.2012.5.25)
<http://eranness.blogspot.com/2011/01/>(검 색 일.2012.5.25)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검 색 일.2012.5.25)
http://www.kmaa.or.kr/new/04_gallery(검 색 일.2012.5.25)
http://izismile.com/2009/03/02/face_painting1(검 색 일.2012.5.25)
<http://electric-thread.blogspot.com>(검 색 일.2012.5.25)
<http://acgraves.blogspot.com/2010/08/jean-dubuffet.html>(검 색 일.2012.5.25)
<http://forum.xcitefun.net/body-painting-ancient>(검 색 일.2012.5.25)
<http://topbankaccounts.com/images/bodypainting>(검 색 일.2012.5.25)
<http://leisure.ezinemark.com>(검 색 일.2012.5.25)
<http://favim.com/image/14621/>(검 색 일.2012.5.26)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검 색 일.2012.5.26)
http://postfiles3.naver.net/20091014_194(검 색 일.2012.5.26)
<http://cfile207.uf.daum.net/image>(검 색 일.2012.5.26)

http://cfs3.tistory.com/upload_control(검 색 일.2012.5.26)
<http://blog.hankyung.com/files/attach/images/1747774.jpg>(검 색 일.2012.5.26)
<http://www.nemopan.com/files/attach/images>(검 색 일.2012.5.26)
<http://neosurrealism.artdigitaldesign.com>(검 색 일.2012.5.26)
<http://leviuqse.blogspot.com>(검 색 일.2012.5.26)
<http://frankiecihi.blogspot.com/2011/02/body-art.html>(검 색 일.2012.5.26)
<http://humanbodyart.blogspot.com/2009/04/.html>(검 색 일.2012.5.27)
<http://artist-3d.com/neosurrealismart/GalleryImage01.jpg>(검 색 일.2012.5.27)
<http://threequartermoonproductions.wordpress.com>(검 색 일.2012.5.27)
<http://trendscelebritybodypainting.blogspot.com>(검 색 일.2012.5.27)
<http://blog.joinmsn.com/usr/o/h/ohjinkook/13281%29.jpg>(검 색 일.2012.5.27)
<http://www.ohgizmo.com/wp-content/uploads/2007/03>(검 색 일.2012.5.27)
<http://art-body-painting-photograph.blogspot.com>(검 색 일.2012.5.27)
http://www.artknowledgenews.com_jean_dubuffets_life(검 색 일.2012.5.28)
<http://www.liveauctioneers.com/item/9378548>(검 색 일.2012.5.28)
<http://www.flickriver.com/photos/32357038@N08>(검 색 일.2012.5.29)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h>(검 색 일.2012.5.29)
<http://aphorismes.over-blog.net/article-6305033.html>(검 색 일.2012.5.29)
<http://www.poemlane.com/bbs>(검 색 일.2012.5.29)
http://www.artcurial.com/en/news/press_releases(검 색 일.2012.5.29)
<http://www.nashersculpturecenter.org>(검 색 일.2012.5.29)

2. 국외 문헌

Dubuffet, J.(1973), 『L'homme du commun a L'ouvrage』, Paris:
Gallimard.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on of Art Make-Up Works by the Application of Jean Dubuffet's Works

Kim, Seon Gyeo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Art, which used to be considered as a genre that was noble and difficult to approach in the past, has settled down as part of daily life with genre barriers crumbled down in modern society these days. As pure art such as painting, sculpture, and architecture is incorporated into fashion, advertising, film, and other various genres, the boundaries among the genres are increasingly blurry. What comes out of two or more genres incorporated together is regarded as a new creative genre and becomes active like a vogue. Responding to those flows of the times, there rises a need for new design based on mutual exchanges and collaborations between pure art and design. Paying attention to the advantages of synergy effects through "convergence," the investigator set out to analyze works by pure artists, express them in art make-up, and expand the scope of its expression. Applying the painting styles to art make-up would not only exhibit beauty in pure art, but also

enhance the artistic and aesthetic sense of art make-up and make broad use of aesthetic elements to create original results by recreating pure art in make-up on the body. As a new attempt for creative conception in art make-up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art, the study aimed to apply works by Jean Dubuffet, who created his own unique artistic world beyond the customary art style, as motives and investigate design for art make-up works, thus renewing the perceptions of art make-up, adding more diversity to its expressive styles, and contributing to the field with creative methods of expression at the artistic level.

As for research scope,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rt make-up, categorized it into three groups, and reviewed materials, devices, and expressive techniques. Based on the examination results of the life, artistic tendencies, and work exploration periods of Jean Dubuffet and the trends in his works, the investigator selected six of his works since the 1960s that strongly showed his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informel and anti-cultural tendencies and created works according to the L'Hourloupe, abstract painting, and art brut tendency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six works. The research content and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buffet had an informel tendency or non-uniform and anti-cultural tendency. Based on his artistic tendencies containing irregular aesthetic criteria and standards, he created "art brut," his own world of pure art that seemed as if it were painted by a child. H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olid establishment of its name and concept, which, in turn, had huge influence on his works.

Second, one of the essential works of his portfolio is the very

"L'Hourloupe Series." He created a wide variety of works from paintings to sculpture and formative art by maintaining organic forms in which lines and shapes seemed to multiply and standardized color schemes. Those works represent the artist and make his characteristic tendency. In the period of abstract paintings after the 1970s, he created works in the L'Hourloupe style by using diverse colors and work images that seemed to be different and yet connected.

Finally, his firm faith in informel and anti-culture and his yearning for pure art were clearly reflected in his world of works and various creative activities. By expressing his free and vivid feelings inherent in his works in her art make-up works, the investigator became free from the old stereotype with colors and forms.

As for research limitations, there is no big pool of previous studies that combined make-up with paintings in spite of the huge volumes of special books, reference literature, and thesis data on make-up. The investigator was faced with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creating her works as there was no research on Dubuffet's works in make-up as well as art make-up with only a couple of cases in which paintings were applied to art make-up. The study will hopefully help follow-up study create art make-up works of new and fresh design by applying paintings of pure art including the works by Jean Dubuffet in more various styles and techniques.

【Keyword】 Jean Dubuffet, Art Brut, Informel, L'Hourloupe, Make-up, Art make-up